

시리아 휴전 합의 이행 불투명

- 지난 4월 12일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에 합의했으나 유엔 감시단 파견 당일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합의 이행이 불투명함.

표 1. 시리아 반정부 시위 개요

- 알 아사드 대통령 장기 세습통치체제¹⁾, 바트당 장기집권, 비상사태법, 쿠르드족 문제, 높은 청년실업률, 민생 불안정 등 문제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EU와 미국은 2011년 5월 對시리아 제재를 발표했고, 8월에는 알 아사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으며, 9월에는 EU가 시리아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함.
- 아랍연맹(AL)은 2011년 11월 시리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고 對시리아 경제 제재에 발표함, 또한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을 24시간 이내 중단하는 평화안을 시리아 정부에 제시했으며, 12월에 동 평화안 이행 감찰을 위한 감시단을 시리아에 파견함.
- 아랍연맹이 2012년 1월 아사드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통령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사드가 이를 거부했고, 사우디를 비롯한 GCC 국가들이 감시단에서 철수하며 AL 감시단 활동이 중단됨.
- 2012년 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정부 유혈진압을 규탄하고 아사드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됨.²⁾
- 2012년 2월 24일 서방과 아랍의 60여 개국의 대표들이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튀니지에서 ‘시리아의 친구들’ 국제 연대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시리아 반체제 단체인 시리아국가위원회(SNC)를 시리아인의 합법적 대표기구로 인정

- 아랍연맹(AL) 평화안 제시와 감시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유혈 사태가 지속되자 코피 아난 전 유엔총장이 유엔 차원의 평화안을 고안하여 합의를 도래함.

- 아난 전 총장은 유엔-AL 특사로 3월 10일 시리아를 방문한 후 16일 평화안³⁾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한 유엔 안보리 성명서가 21일 채택됨.

- ※ 반정부 시위 시작 1년 만에 채택된 동 성명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처음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동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3월 27일 시리아 정부는 아난 특사의 평화안을 수용하며 4월 10일까지 군 병력을 철수하고 12일부터 휴전할 것을 약속했으나 휴전 전후로 무력 충돌이 지속됨.

1) 1970년 무혈 쿠데타로 하페즈 아사드 전 대통령이 2000년까지 집권하고 사망한 후 아들인 바사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이 권력을 승계하여 11년째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2000년 당시 정치범 석방 등 다양한 정치 개혁을 추진했으나 1년 뒤부터 정치 및 언론 통제를 강화함. 약 48년간 국가비상사태법을 유지해왔으며 무카바라트(비밀경찰)들이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거나 재판 없이 구금하기도 함.

2) 찬성 137, 반대 12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기권 17

3) 1) 시리아의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대화 프로세스를 보장; 2) 모든 군대활동을 중지하고, 인구밀집지역에 무기 사용을 중지; 3) 하루 2시간 인도적 휴전; 4) 정치범 및 구금자의 규모와 명단을 공개하고 석방; 5)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이동을 허용; 6) 평화로운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

- 휴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7일 86명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130명, 9일 160명, 10일 45명 사망하는 등 4월 2일부터 8일 동안 1000여명이 사망함.
- 시리아 정부군은 12일부터 휴전을 이행하긴 했으나 이틀째부터 공격이 재개되어 교전이 지속되면서 16일까지 41명이 사망함.
- 4월 14일 유엔 안보리가 휴전 이행 감시단 파견 결의안을 채택하고 16일 6명의 감시단이 우선 파견되었으나 정부군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무력충돌이 여전함.
- 리비아 혁명 때와 같은 서방국들의 군사적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가 미비한 유엔 조치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시리아가 ①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②터키 및 이라크에게 예민한 쿠르드족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③이란과 오랜 동맹국이므로 군사적 개입 시 역내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
- 시리아 타르투스 항의 러시아 해군기지는 구소련 지역 밖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군항이자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의 교두보이므로 러시아는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⁴⁾
- 한편, 2011년 3월부터 이어진 시리아 반정부 시위로 지난 13개월 동안 총 11,117명의 사망자와 약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있음.⁵⁾

〈BBC, MEED, Economist, KSURE, 각종 언론 보도 취합〉
(박연경 연구원)

4) "Wait and Sea-An awkward visitor," Economist.com 14 Jan 2012, 19 Apr 2012, <<http://www.economist.com/node/21542793>>

5) 영국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 추정: 민간인 7,972명, 약 600명의 반군을 포함한 군인 3,145명